



“천적이 왔다”... 제주, 전남 상대 첫 승 사냥

16일 K리그2 2라운드 진행 최근 8경기 연속으로 '무패'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K리그2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제주는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양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남과 격돌한다. 지난 9일 개막전에서 서울이랜드와 1-1 아슬운 무승부를 기록했던 제주는 이날 경기서 승기를 일전에 첫 승을 거둔다는 각오다.

2부리그에서는 첫 맞대결이지만 상대전적에서는 전남을 압도한다. 통산전적에서 40승 20무 16패로 크게 앞서고 있으며, 최근 전남전 4연승 및 8경기 연속 무패(7승 1무)를 질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3경기는 모두 무실점 승리로 장석해 가히 천적이란 부를만하다.

임덕근의 출전 여부도 큰 관심사다. 지난 시즌 제주에 입단한 임덕근은 이랜드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다. 패스 성공률 82.4%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

끌었고, 2개의 인터셉트도 기록했다. 특히 볼 차단은 무려 8개로 팀내 최다 기록이었다.

후반전에는 권한진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자 스리백 중앙으로 이동해 커맨더형 수비수로서 자질이 보여줬다. 이번 전남전에서도 U-22 출전 카드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꾸준히 기회를 잡는다면 이번 시즌부터 신설된 K리그2 영플레이어 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

다른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크다. 정조국은 통산 381경기에 출전해

120골 29도움을 기록 중으로 이날 경기서 단 한개의 공격포인트를 추가할 시 K리그 통산 10번째로 공격포인트 150개를 달성하게 된다. 윤보상은 이날 경기서 출전하면 프로 통산 1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세운다.

남기일 감독은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아쉽다. 하지만 4승 1무를 거두겠다는 5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전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목표하는 1부리그 승격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늘어난 홈런... 공인구에 문제?

작년비 경기당 0.8개 증가 반발계수 상승 영향 의견도 KBO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 5일부터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프로 야구에서 홈런 빈도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하자 공인구에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37경기에서 나온 홈런수는 모두 82개로, 경기당 2.22개다.

‘타고투저’가 극심했던 2018 시즌(경기당 홈런 2.44개)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인구 반발계수를 하향조정된 뒤 처음 치러진 작년 시즌 경기당 홈런수(1.41개)와 비교하면 경기당 약 0.8개가 더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작년과 올해 적용되는 KBO리그 공인구 반발계수(0.4034~0.4234) 기준이 동일하며, 검사결과 현재 리그에서 쓰고 있는 공이 규정된 반발계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KBO 공인구는 ㈜스카이라인스포츠의 AAK-100이다. KBO가 개막 3일차인 지난 7일 발표한 2020 시즌 공인구 1차 수시검사서 공인

구 반발계수는 평균 0.4141로 측정됐다.

또 하나의 팩트는 공의 반발계수가 작년 이뤄진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미세하게 상승한 것이다.

합격기준(0.4034~0.4234)의 대략 중간쯤에 자리한 이번 공인구 반발계수는 ‘홈런 가뭄’ 시즌이었던 작년 10월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0.4105)에 비해 0.88% 향상됐다.

그런 반면 ‘홈런 풍년’ 시즌이었던 2018년 6월 테스트 수치인 0.4176보다는 0.83% 낮은 수치다. 결국 반발계수로만 따지면 현재의 공인구는 홈런 수의 진폭이 컸던 2018년과 2019년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셈이다.

KBO 박근찬 운영팀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인구 반발계수를 높이거나 낮추려면 공 안에 들어가는 코어, 실 등 재료를 바꿔야 한다”며 “공의 반발 계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조아연이 마스크를 쓴 채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가 빚은 진풍경 ‘마스크 티샷’

KLPGA 챔피언십 ‘티오프’ 마스크 필수·동선마다 소독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LPGA 챔피언십 1라운드가 열린 14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마치 철통 경계가 펼쳐지는 1급 보안 시설과 다름없었다.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프로골프 투어 대회다.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선수들은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체온을

재 뒤 자외선 살균기를 거쳐야 선수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었다.

선수들이 경기 전후에 머무는 선수라운지 입장도 철저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선수와 캐디 말고는 누구도 출입을 금지했다. 선수 부모조차 예외는 아니다. 라운지 안에서도 강력한 거리 두기는 여전했다.

식사도 탁자에 혼자 앉아서 먹어야 했다. 박성현(27)은 “혼자 앉아서 앞만 보고 밥을 먹자니 어색했다”고 말했다.

코스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방역에 맞춰졌다. 웬만한 동선에는 소독제

가 비치됐고, 깃대도 손잡이 부분에는 항균 필터를 감아놨다.

선수는 경기 중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캐디는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땀병에 기온이 25℃까지 올라간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쓴 채 캐디백을 메고 걸어야 하는 캐디들은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평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선수끼리 악수나 하이파이브도 없었다. 경기가 끝나면 서로 안아주던 선수들은 주먹만 살짝 부딪히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스코어 접수처는 아예 야외에 차

렸다. 최진하 경기위원장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좁은 접수처 안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어 야외에서 스코어 카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외라도 접수하는 직원이나 선수 모두 마스크를 썼다. 스코어카드를 건네려면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KLPGA 박진우 전략마케팅 팀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터라 프로골프 대회 방역의 스탠더드가 우리라는 사명감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다”면서 “방역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귀포시 천지학생체육관 2억5000만원 들여 새 단장

서귀포시는 14일 천지학생체육관(옛 동흥생활체육관) 보수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2020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 화장실 2개소와 샤워실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계절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교체와 복도 바닥 등을 정비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붕 방수 공사도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천지학생체육관은 서귀포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8만~9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보수 공사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p>BD-AFE50N</p> <p>생활방수 3년무상A/S</p> <p>₩299,000 ₩229,000</p>	<p>BD-N443(리모컨)</p> <p>방수비데</p> <p>₩299,000 ₩259,000</p>
<p>BD-AE91</p> <p>방수비데 (3Way 노즐)</p> <p>₩269,000 ₩229,000</p>	<p>BD-CD51N</p> <p>방수비데 (원적외선 건조) 보상판매</p> <p>₩299,000 ₩229,000</p>